

특집3

충남 연구원의 미래와 비전

송두범 _ 충남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



충남연구원이 올해 6월 개원 20주년을 맞았다. 1995년 6월 15일 대전시 은행동에서 개원한 충남연구원은 5차례 청사이전을 거쳐, 2008년 공주시 금흥동에 등지를 마련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인간의 나이로 보면 20년이 긴 세월은 아니지만,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역사로 보면 그리 짧다고 할 수 없다. 그동안 우리 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 법률(2001)』 제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충청남도 정책개발을 위한 싱크탱크로서 기능과 역할도 성실히 수행해 왔다.

개원 20주년인 올해는 연구원 명칭을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충남연구원”으로 변경하였고, 이에 걸맞는 미래지향적인 연구원상을 정립하는 한해를 만들어 갈 것이다. 이 글에서는 새롭게 출발하는 충남연구원의 성장과정과 현재여건을 살펴본 다음, 미래지향적인 미션, 비전, 핵심가치를 새롭게 정립해보고자 한다.

충남연구원의 성장과정

충남연구원은 1995년 1월 『충남발전연구원육성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같은 해 5월 충남도와 시군으로부터 기금 30억원을 출연받아, 6월 15일 대전시 은행동에 위치한 충청은행 건물에 11명의 소규모 인력으로 개원하였다. 1998년 충청은행의 퇴출로 둔산동 사학연금회관으로 이전하였고, 2000년에는 계룡출장소(현 계룡시청)로 이전하였다. 2000년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연구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고, 2001년 연구원 육성조례는 『충남발전연구원설립 및지원에관한조례』로 개정됨으로써 출연금 또는 보조금 교부근거를 마련하였다.

2003년 연구원은 또다시 유성구에 위치한 구충남농업기술원 청사로 이전하였고, 이듬해 연구원내 역사문화연구소는 “충남역사문화원”으로 분리·독립하였다. 충남역사문화원의 분리에도 불구하고, 2005년 개원 10주년을 맞은 연구원은 53명의 인력을 보유한 중견연구원으로 성장하였다. 도안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연구원은 2006년 대전 오류동 동아일보빌딩으로 이전하여 2년을 지내다 2008년 공주 금흥동에 연구원청사를 신축·이전하여 2015년 6월 개원 2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충남연구원은 설립초기 연구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미흡, 재정지원 열악, 연구인력의 부족 등으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으나, 수도권에 인접한 충청남도의 급속한 성장에 힘입어 급증하는 연구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연구조직을 확충하고 연구인력을 확보하여 짧은 시간이지만, 충남의 변화를 선도하는 연구원으로 성장하였다.

탄탄대로일 것 같던 연구원도 2000년 한때 연구원은 영과 관련한 갈등으로 지역사회에 관심을 받은 기억이 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인력들이 타의에 의해 연구원을 떠날 수 밖에 없었다. 이후 아픈 상처를 치유해가면서 연구원은 일취월장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충남연구원의 현재

충남연구원은 현재 약120명의 인력이 근무하는 연구원으로 성장하여 인력으로만 보면, 개원당시와 비교하여 10배 이상이 성장하였고, 기금조성액도 156억원으로 개원당시 30억원의 4배로 성장하였다. 조직은 4개부서로 출발하였으나, 현재 1실 1단 6부 6센터 1팀으로 확충하였다. 연구실적 역시 비교가 어려울 만큼 성장하여 명실공히 충청남도의 정책개발을 위한 싱크탱크 기능 및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국비확보를 위한 논리를 연구원에서 개발하고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상당수의 국비를 확보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도와 시군, 도의회와 시군의회, 충남도민의 다양한 연구수요에 능동적이고 협력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연구만족도 및 정책활용도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다.

연구성과를 축적, 검색 및 공유하기 위해 지식포털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지역연구의 허브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연구성과의 확산과 정책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충남리포트, 인포그래픽스, 웹진, SNS 등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연구원내에 행복발전소, 노사협의회와 같이 구성원들

의 소통과 협력, 민주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합의와 소통에 기반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광역자치단체 출연연구원임에도 불구하고 수탁과제에 의존하는 연구환경으로 매년 운영비 확보에 노심초사할 수 밖에 없는 점은 연구원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연구원 독립청사를 보유하고 있고, 현재 증축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연구원들의 연구환경의 양적·질적 수준은 그리 높지않은 편이다.

한편, 중앙정부 출연연구원의 세종시 이전으로 연구협력환경은 조성되었으나, 협소한 지역의 연구물량을 국책 연구원과 경쟁할 수 밖에 없는 무한경쟁 구도가 형성되었다.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과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여 많은 혜택을 누려왔으나, 이 역시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되어 연구원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반면, 중앙정부 출연연구원의 세종시 이전으로 정보소통 및 공동연구의 용이성 등은 연구원발전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충남연구원의 미래지향적 미션, 비전 그리고 핵심가치

2013년 충청도청은 대전시대를 마감하고 홍성·예산의 내포신도시로 이전하였다. 충청도청의 내포시대를 맞이하여 충남연구원 역시 환황해권시대 충청남도의 변영과 충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올해는 충남연구원 개원 20주년이 되는 해이다. 충남연구원이 새로운 50년, 100년 이후에도 지속가능한 연구원으로 존속하기 위해서는 연구원의 미션과 비전, 핵심가치를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새롭게 설정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충남연구원의 미션과 비전, 핵심가치를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새롭게 설정하는 것은 충남연구원의 존재이유



를 분명히 하고, 미래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며, 신념과 가치체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션(Mission)은 연구원의 존재이유, 사명, 이념, 궁극적 목적 및 방향성을 말하고, 비전(Vision)은 연구원이 꿈꾸는 미래의 청사진, 성취하고자 하는 소망, 핵심가치(Core Values)은 연구원 성공의 DNA, 조직문화, 영속적이고 내적인 신념, 정체성사고 및 행동의 기준을 말한다.

『충남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충남연구원이 충청남도 및 시군의 중장기 발전 및 지역경제 진흥, 역사문화의 보존·계승, 지방행정과 관련된 정책과제의 체계적인 연구·개발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충남연구원 정관』에서는 충청남도 및 시군발전과 도정 및 시·군정 전반에 대한 과제를 전문적·체계적으로 조사·분석·연구하여 유용한 정책대안들을 제시함으로써 도민의 정책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도민행복과 지역경제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조례와 정관에 근거하여 충남연구원의 미션은 ‘도민만족 정책, 도민행복 정책의 연구·개발 및 정책대안 제안’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충남도청이 새롭게 도래하는 서해안시대를 열어가는 원대한 꿈을 꾸면서 내포신도시로 이전하였고, 충청남도는 서해안 시대를 넘어 중국·일본·아세안 등 환황해권 국가 자치단체를 견인하는 시대를 꿈꾸고 있다. 충청남도가 환황해권 중심 자치단체로 부상할 수 있도록, 충남연구원의 비전도 ‘환황해권으로 열린 창조적 지역연구 플랫폼(platform)’으로 제안코자 한다.

충남연구원의 미션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충남연구원의 핵심가치는 ‘지식공유, 변화주도, 실사구시(實事求是), 사회적 가치, 지속가능발전, 윤리적 연구’로 제시코자 한다.

지식공유는 충남연구원이 단순히 지식을 생산하고, 저장하는 것만이 아니라 창출·유통하고 활용하는 지식

과 관련된 모든 프로세스로 확장가능해야 함을 의미한다. 충남연구원은 중앙정부의 지식정보와 충남도와 시군, 도민 등이 필요로 하는 가치 있는 지식을 생산하고, 지식관리시스템을 통해 효과적으로 저장 및 재생산하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개방과 공유함으로써 지식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충남연구원은 거시적 메가트렌드, 미래사회 변화 전망을 통해 바람직한 미래모습을 제시함으로써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최근 세계는 중국중심으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 중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을 주도하고 있고, 신실크로드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를 일컫는 일대일로(一帶一路)프로젝트를 야심차게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주도의 세계경제 흐름을 파악하여 충청남도와 시군의 대응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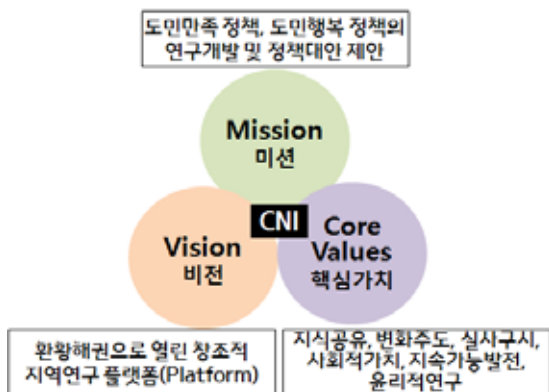
충남연구원의 설립목적은 충남도 및 시군발전, 도정 및 시군정에 대한 유용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현장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참여형 실사구시(實事求是) 연구를 통해 현장에 기초한 정책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각 분야 다양한 현장에 초점을 맞춘 연구와 연구자중심의 연구가 아니라 연구수요자 중심적인 연구수행도 강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충남연구원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연구원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많은 도민들이 경제, 사회, 노동, 교육, 문화적 차원에서 주류사회로부터 소외되거나 사회적 권리의 획득에 실패한 소위 사회적배제자를 경험하고 있다. 충남연구원은 이러한 사회적배제자들을 주류사회로 편입시킬 수 있는 정책대안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제안해야 할 것이다.

급격한 성장을 경험한 충남도 과거와 같은 지역발전을 이룩할 수 없기 때문에 미래세대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지속가능발전 관점에서 지역사회 및 지역경제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최근 연구윤리가 강화되고 있다. 연구윤리를 확보하기 위한 정부나 학계에서 다양한 수준의 지침과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연구윤리는 연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사회적으로 연구자들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다. 충남연구원 역시 최근 연구윤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도입하고 있다. 앞으로는 연구윤리 준수요구가 강화될 것이 필연적이기 때문에 윤리적 연구풍토 조성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다.



[그림] 충남연구원의 미션, 비전, 핵심가치(예시)

이러한 핵심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충남연구원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국책연구원, 지역연구원, NGO와 네트워크, 사회·경제·문화·환경생태를 포괄하는 분야별 네트워크를 통해 충남도와 시군, 도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수집·교환·제공하는 네트워크 매니저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연구원은 조사·연구기능과 더불어 중앙과 지방, 관과 민간의 교류협력을 주도하면서 다양한 정보를 소통하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충남연구원은 미래 50년을 준비하기 위해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새로운 미션과 비전, 핵심가치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충남연구원이 미션과 비전, 핵심가치를 새롭게 정립함으로써 어떠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맺음말

충남연구원이 20년의 역사를 쓸 수 있었던 것은 충남도와 시군, 연구원 구성원과 충남도민의 신뢰와 성원 덕분이다. 그러나, 충남연구원에 대해 충남도민 모두가 신뢰하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연구원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식한다 하더라도 존재가치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적지 않을 것이다.

연구원 스스로 자기혁신과 변화를 통해 충남도와 시군의 미래 청사진과 정책대안을 제시해주지 못한다면 한순간에 연구원에 대한 신뢰와 믿음은 사라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충남연구원은 연구원 설립목적과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비전과 핵심가치를 확고히 정립함으로써 연구원의 자기정체성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거시적 메가트렌드와 변화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충남도와 시군의 전략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해 주어야 할 것이다.

20주년을 맞이한 충남연구원이 미래 50년, 100년 이후까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충남도와 시군의 정책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창조적 지식정보를 창출·유통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구성원 모두 가슴에 새기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충남발전연구원.
충남발전연구원 10년사, 2005.